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사람들이 열심히 소통해야 하는 이유 성경: 창세기 11장 1-9절

Tag: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11:1-9)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을까?

언어가 하나였다면 우리는 힘들게 영어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교도 너무 너무 쉬웠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다면 언어가 하나라면 매우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자.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한국어가 매우 쉽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어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한국어와 한글은 매우 우수한 문화적 도구인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당신은 한국어로 한국사람 몇사람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살고 있는가?

당신 부모와 소통하는가?

친구들과는 소통하고 살고 있는가? 몇 명이나 진정한 소통을 하는가? 술자리 소통 말고.(esp 자동 무한반복 쌍방 허세 유통)

부부간에는 소통을 하는가?

정말 소통은 어려운가?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듣고, 나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척 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알아듣는 척, 이해하는 척, 용납하는 척 하지 말자. (괜찮아유.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거지유. 최양락이 초등학교 운동회 가족계주 하던 날 이야기)

진짜 알아듣고, 이해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청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되뇌이고, 되묻자.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말고, 말을 돌려서 표현하지 말자.

진정 관계를 유지하려면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데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

힘으로 안다.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이만갑) 좌파와 우파도 극과 극이다. 두 사람 대화하면 한 마디도 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치관만 다른 게 아니다. 문화가 다르다. 의식구조와 프레임이 다르다. 두 계파는 오랜 세월동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문화를 통해서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왔다. (판도라, 광해, 변호인, 도가니, 택시운전사, 베테랑 등. 국제시장은 우파영화 어려운 좌파 우파 가치관을 영화와 같은 문화로 뺏속 깊이 이식시켜 놓는 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흠어짐을 면하자는 것.

그런데 왜 하늘 끝까지 닿도록 탑을 쌓으려는 것일까? 홍수가 나면 들어가서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하늘로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날평지(바벨론 제국의 발상지, 티크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함. 부동산으로서 최고의 요지)를 만나서 이곳에서 행복하고 오래도록 살기 원했다. 물도 풍족하나 평지 이므로 홍수가 나면 빨리 물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성읍을 건설하기로 한다.

그들은 먼저 벽돌 굽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역청으로 높이 쌓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집을 짓고, 성벽도 쌓으면서 힘을 모았다.

그러자 나라가 만들어지고, 임금도 세우고, 병사도 모집하면서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성읍까지는 ok

그러나 탐은 소용이 없다. 이름을 낸들 무엇하리. 흠어지면 더 좋지 않는가?

-그러나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자기가 더 만족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를 위한 생각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여기서부터가 거짓말이다. 자기만을 위한 생각의 프레임이 이념이다. 그리고 거짓은 거짓을 만든다. 거대한 거짓의 바벨탑.

-홍수가 나면 위험하니 탐을 만들어야 한다. (당시의 거짓말, 전두환의 평화의 댐, 태양광 발전이라는 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려면 어마 어마한 크기의 탐을 만들어야 한다.

-홍수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쳐들어가야 한다. 그를 대적해야 한다. (군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사와 일꾼과 세금이 필요하다.

-우리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므로 흠어지지 않도록 하자. 최초의 사람 대 하나님의 전쟁을 계획함. 그날 이후로 여전히 계속되는 영적 전쟁. (오늘날에는 인본주의 좌파이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으니,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흠어지고 말았다.

그때 이후로 인류의 생각은 흠어졌다.(프레임 짜기가 아주 어려워짐.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선민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생각을 훈련 시키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프레임을 짜

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통일시켰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과 생각이 달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 내신다.

원칙이 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진리의 말씀이므로 매우 유익하며 지혜를 만들어낸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 진리를 깨우치실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가장 지혜롭게 적절하게 적용하게 하셨다. 비로소 우리는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론과 실체는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과 소통하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굳게 붙들라.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라.

그들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래야 성령을 받은 자들과 함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윤리는 오후에)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 안에서 소통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암송 대회 성경: 잠 4:23

Tag: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성경 이야기는 내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인류의 이야기는 곧 나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곧 나의 이야기이다.

-나와 인류는 별개가 아니라, 내가 곧 인류이다.

-너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별한다.

-그들과 소통은 하되, 그들과 내통하지는 말라. 그들과 혼합되지는 말라.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되, 거기까지다. 같이 죄를 범하거나 울무에 걸려들지는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힘을 합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행하라. 주체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서, 치우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풍족하게 행동하라.

